

전주시의회 의원 8명 5분 발언 잇따라

전주사랑상품권 활용 확대 · 재정 운영 방식 재설계 · 현장 중심 행정 실천 등 다양한 의견 제시



김세혁 의원



이성국 의원



정섬길 의원



장병익 의원



한승우 의원



이남숙 의원



최명권 의원



김정명 의원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은 전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관 각종 행사 및 공모전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정부의 핵심 공약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운용 방식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전주시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 10억원 이상 건설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예산 낭비·행정력 소모·신뢰 저하 등 복합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보

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섬길 의원(서신동)은 현장 중심의 행정 실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배수로, 쓰레기 수거, 생활불편 사항들이 반복되는 것은 탁상행정인 결과물로, 시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세심한 점검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상장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익 의원(완산, 중화산1·2동)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전주시의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새로운 정부의 공약에 따라 전북도는 55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주는 독자적 실행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북·강원 등 3특권역에 공공기관 우선 배치,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정권’, ‘정주 여건 혁신 패키지’ 등 대응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승우 의원(산천1·2·3, 효자1동)은 완산철봉의 호랑가시나무 관리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했다. 한 의원은 “난대성 상록활엽수인 호랑가시나무가 완산철봉에 생육하는 것은 전주시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등 자연생태계 변화로 판단된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지형의 변화 및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정밀한 과학적 조사를 제안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전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정 논의가 부족하다”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라북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 중인 만큼 전주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은 도로공사

사전 안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곳곳에서 사전 예고 없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과 민원은 물론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도로 공사에 대한 사전 공지 기준을 마련하고 누리집, SNS,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사 정보 전달과 의견 수렴 등 소통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광역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2027년 매립이 완료 될 예정으로, 이전에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은 필수인 만큼 해당 부지를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스포츠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클러스터로 조성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희성 기자

‘그림책, 마법의 공간’ 감동 전한다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연계 작가 초청 강연 개최

전주시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주시 3개 특성화도서관에서 독자들에게 그림책의 깊은 세계와 마법 같은 감동을 전하기 위한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연계 작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올해 도서전의 주제인 ‘그림책, 마법의 공간’을 일상과 옛이야기, 자연 등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먼저 첫날인 10일에는 덕진공원연화정도서관에서 권문희 작가가 ‘부비디 바비디 부! 옛이야기 속 마법’을 주제로 독자와 만나며, 이어 오는 19일에는 연화정도서

관에서 ‘이우만 작가가 들려주는 자연의 마법’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또한 한옥마을도서관에서는 오는 20일 김유진 작가가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마법처럼 빛나는 순간’을 주제로 독자와 만나며, 오는 28일 동문헌책도서관에서는 ‘서현 작가가 들려주는 일상의 마법’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이 가운데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원화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팔복예술공장(백화나 작가, 사라 룬드 베리 작가)과 완산도서관(에바 린 드스트룀 작가, 키티 크라우더 작가)에서 진행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오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1,632개소 시설물 및 2만 6,400건 정도 호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되며,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시설 또는 연면적 160㎡ 이상을 분할하여 소유한 건축물로, 매년 10월경 정기 고지된다.

부담금은 건물의 연면적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및 사용기간을 곱해 산정되며, 주거용 건물과 도서관 등 법령상 면제 대상은 제외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되며,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시설 또는 연면적 160㎡ 이상을 분할하여 소유한 건축물로, 매년 10월경 정기 고지된다.

전주시 완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구는 10일 구청 인근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 인근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시민과 운전자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



어주고자 했다. 특히 장소를 옮겨가며 지속적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해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신도심 상가 공실 실태조사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라이징연구회’(회장 최서연)는 10일 ‘전주시 구도심 및 신도심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서연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의 추진 방향과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는 전주 구·신도심 주요 상권의 실태를 분석하고, 상권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기반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탄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박차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 방문… 국제 협력 강화 위한 간담회 가져

전주시가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과 전주산 탄소복합재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와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현

지시간으로 지난 9일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PKTK)를 방문해 안제이 추왈락(Andrzej Czulk) 협회장을 비롯한 클러스터 관계자, 막달레나 마워 폴스키에 주국장 등과 함께 복합소재

및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럽을 순방 중인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관계자, 데크카본·비나텍·아이비스 등 전주 소재 탄소기업 대표, 폴란드 복합재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양국 간 기술 교류와 공동 사업 추진, 유럽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합재 및 첨단소재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한-폴란드 기업 간 기술·제품 협력 가능성 △유럽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업 방안 등이 다뤄졌다.

또한 시와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는 대학 및 연구기관 간 산학연 연계 확대를 통한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도 중점 논의했다. 시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는 이 자리에서 양국의 소재·기술 역량을 융합해 실질적인 기술 협력은 물론, 정기적인 기술 세미나와 인재 교류 프로그램, 국제 공동연구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앞으로도 유럽 소재 강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대학·연구기관 간 국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글로벌 R&D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전주시와 폴란드 간 실질적인 국제 협력의 물꼬를 댔다”면서 “앞으로도 산학연 연계를 확대하고 유럽시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넓혀, 전주의 첨단소재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